

조선총독부의 지역지배의 식민지성

—시정5년기념 조선물산공진회(1915)와 전북—

이 정 옥*

- I. 들어가며
- II. 박람회와 제국주의
- III. 조선물산공진회-전통의 단절과 새로운 5년
- IV. 전북물산공진회
- V. 조선물산공진회와 전북관
- VI. 나가며

I. 들어가며

박람회의 기원은 1851년 영국 런던의 하이드파크에서 예술·공업·상업의 진흥을 꾀하기 위해 개최된 런던 만국박람회를 시작으로 500만 명의 입장객을 기록한 파리 만국박람회(1855), 미국 독립 100주년을 기념해 개최된 필라델피아 만국박람회(1876), 아메리카 대륙 발견 400주년을 기념해 개최된 시카고 만국박람회(1893) 등으로 이어졌다. 필라델피아 만국박람회에 전 화기와 재봉틀이 처음으로 등장했으며 파리 만국박람회(1878)는 에디슨의 축음기와 자동차가 일반에게 첫 선을 보이며 ‘생산물의 개량 발전 및 산업 진흥’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하지만 박람회는 유럽을 비롯한 미국의 독무

* 본 논문은 2014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4S1A5B8063617)

** 전주대학교 한국고전학연구소 연구교수, 일제강점기 지역문화사.

대였으며 120여년의 세월이 지난 1970년에서야 유럽과 미국이 아닌 일본에서 개최되었다.

오사카에서 개최된 일본 만국박람회는 ‘인류의 진보와 조화’를 테마로 6,400만 명이라는 경이적인 숫자를 기록하기도 했다. 한국은 1993년 ‘새로운 도약의 길’을 주제로 대전 국제박람회를 개최했다. 2020년 두바이 국제박람회를 예정하고 있는 국제 박람회는 스포츠계의 올림픽과 함께 전 세계의 ‘경제 올림픽’으로 거듭나고 있다.

박람회와 우리나라의 관계는 1881년 신사유람단으로 일본에 간 유길준 등이 당시 도쿄의 우에노 공원에서 열린 내국권업박람회(內國勸業博覽會)를 통해 시작되었다. 1884년 『한성순보』는 박람회를 ‘과학을 날로 성하게 하며 세운(世運)이 활짝 열리는 방법’¹⁾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이후 1889년 파리 만국박람회에 갓, 모시, 가마 등을 출품하며 조선의 문화를 전 세계에 알렸으며 시카고 박람회(1893)에는 ‘대한제국관’을 열어 정식으로 참가하기도 했다.

1910년 ‘한일병합조약’으로 일본의 식민지가 된 조선은 일제강점기 동안 3회에 걸쳐 박람회를 개최한다. 1915년 9월 1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조선총독부가 주관이 되어 경복궁에서 열린 ‘시정5년기념 조선물산공진회’(始政五年記念朝鮮物産共進會, 공진회로 칭함)를 시작으로 ‘시정20년 조선박람회’(조선총독부주관, 경복궁, 1929.9.12.~10.31), ‘기원 2600년 시정30주년 기념 조선대박람회’(경성일보사 주최, 조선총독부 후원, 청량리역, 1940.9.1.~10.23)가 개최된다. 이들 박람회는 일본의 식민지 통치를 통해 조선을 계몽하여 조선의 산업의 발전상을 알리기 위한 공진회, 1920년대 후반 세계적인 경제공황을 타개하기 위해 기획된 조선박람회, 조선과 일본의 내선일체와 조선인의 황국신민화를 홍보하기 위해 조선총독부가 아닌 신문사가 중심이 된 조선대박람회로 개최되었다.²⁾ 세 박람회 이외에도 일제강점기

1) 「박람회설」, 『한성순보』, 1884.03.18, p.20.

2) 이자규, 『한국의 근대박람회』 커뮤니케이션북스, 2010. p.606.

조선에서는 기차박람회(1922), 조선수산물전람회(1928), 조선산업박람회(1935) 등 각 산업별 박람회와 전북물산공진회(1914), 경성부생산물전람회(1926), 경북수산물진흥공진회(1935) 등 각 지역별 박람회가 173개나 개최되었다. 이들 박람회는 식민지 조선에서 ‘제국’ 일본이라는 틀 속에서 개최된 ‘산업’디스플레이의 성격이 짙었다.³⁾

조선에서 개최된 공진회 및 박람회에 관한 연구는 우선, 공진회는 당시 조선의 사정을 조선인 스스로 인식하고 내면화시키기 위해 가장 효과적인 정책⁴⁾, 박람회의 전시물은 식민지화된 객관적인 세계를 직접 경험할 수 있는 한정된 시공간을 제공한 사회지도⁵⁾, 물질은 물론 정신적인 측면을 침탈하기 위한 실험장⁶⁾, 조선인 개인 소장의 조선 문화재를 전시한 공진회는 조선총독부 박물관(1915.12) 건립에 앞서 조선 문화재의 공적 약탈의 전시장⁷⁾이었다고 밝히고 있다. 이들 연구는 조선총독부가 식민 초기 원활한 통치를 위해 공진회를 개최함으로써 시각적인 통치가 이루어졌음을 말하고 있다. 또한 경북공이 공진회 및 미술품 전시회 장소로 사용됨으로써 경북공의 훼손은 물론 조선 문화재의 약탈을 통해 본격적인 일본 제국주의의 문화 통치가 시작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거시적인 관점의 선행연구의 입장과는 달리 공진회에 출품된 조선 각 지역의 물산의 분석을 통해 조선총독부의 지역지배의 식민주의적 시선을 파악하고자 한다. 구체적인 예로는 공진회와 관련해 전북에서 개최된 전북물산공진회와 조선물산공진회에 출품된 전북지역의 물산을 분석함으로써 식민지 조선의 전북지역 산업구조의 재편을 강행하려한 조선

3) 요시미 순야, 이태문 옮김, 『박람회 근대의 시선』 논형, 2004, p.291.

4) 주윤정, 『조선물산공진회(1915)에 대한 연구』,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석사논문, 2003.

5) 최석영, 「조선박람회와 일제의 문화적 지배」, 『역사와 역사교육』(제3·4호), 1999, p.579.

6) 李泰文, 「1915年『朝鮮物産共進會』の構成と内容」, 『言語・文化・コミュニケーション』 No.30, 慶應義塾大學, 2003, p.59.

7) 全東園, 「朝鮮物産共進會と『朝鮮文化財』の誕生」, 『言語・地域文化研究』, 東京外國語大學大學院, 2009, p.145.

총독부의 지역 지배구조를 밝히고자 한다. 이는 1929년 개최된 조선박람회
는 물론 이후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의 전북지역에 대한 지배구조를 이해
하기 위한 밑거름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II. 박람회와 제국주의

조선에서 박람회의 중요성을 처음으로 인식했다고 알려진 유길준은 『서
유견문(西遊見聞, 1895)』에서 다음과 같이 박람회를 정의하고 있다.

세계 각국의 기예와 공작이 나날이 더해지고 다달이 발전하여, 새로 나
오는 각종 물품을 헤아릴 수 없게 되었다. 지난날에는 희귀한 진기(珍器)로
귀중하던 것이 이제는 낡은 편에 속하게 되었고, 예제는 편리한 기구로 불리
던 것이 오늘은 일상적인 물건으로 되어 버렸다. 이런 이유로 서양 여러 나
라의 대도시에서는 몇 년에 한 번씩 생산물 대회를 열고, 세계에 널리 알린
다. 각국의 천연 자원 및 사람이 만든 명산품이라든가, 편리한 기계나 고물
(古物) 및 진품들을 수집하여 모든 나라 사람들이 구경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가리켜 박람회라고 한다.⁸⁾

이미, 1881년 도쿄에서 박람회를 체험한 유길준은 1883년 민영익 전권대
사를 대표로 한 조선보빙사(朝鮮報聘使) 일원으로 40일간 미국을 시찰한다.
도중에 보스턴에서 열린 만국박람회에, 출발 전 준비했던 몇 가지 물품을
전시하며 참가하기도 했다. 재빠르게 발전해 가는 서구 산업사회를 경험한
유길준은 박람회를 통해 축음기, 자동차, 전화기, 재봉틀을 보았을 것이 분
명하다. 유길준의 이러한 경험은 일본의 박람회에서 기인했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박람회를 바라보는 일본의 시선은 어떠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8) 유길준, 허경진역, 『서유견문』, 한양출판, 1995, pp.388-389.

일본은 이미 1861년 도쿠가와 막부의 외교사절로 유럽을 시찰하던 관료들이 런던 만국박람회를 경험하며 박람회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었다. 1867년 파리 만국박람회에서 유럽 제국주의에 의해 만들어진 일본코너에 2명의 사무라이(무사)가 전시품 대용으로 참가하면서 일본을 세계에 알렸다. 유럽인들의 눈에는 왜소한 체구에 우스꽝스러운 머리 모양인 존마케(丁髷)를 한 일본의 사무라이는 오리엔탈리즘을 불러오기에 충분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러한 박람회에 대한 일본의 관심은 1871년 도쿄에서 물산회(物産會)를 개최하게 된다. 1873년 빈 만국박람회에 본격적으로 참가, 파리 만국박람회(1889)에는 13만 엔의 거금을 들여 일본 특설관을 만들기도 했다. 1900년 파리 만국박람회에는 130만 엔을 들여 산업적, 제국주의적인 이미지를 강조했다. 이는 대만의 식민지화(1895년), 홋카이도(北海道)를 지배해왔던 일본이 1898년 처음으로 ‘홋카이도 식민지’라는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아시아의 제국주의 국가로 거듭난 일본을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함이다.

1871년 도쿄물산회 이후 1930년대 후반 중일전쟁 등으로 전황이 악화되며 더 이상 박람회를 개최하지 못하게 된 1939년까지 일본은 총 50회에 걸쳐 대규모의 박람회를 개최할 만큼 박람회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었다.

조선이 강제 병합되기 이전 일본에서 개최된 박람회 중 두 차례에 걸쳐 조선이 소개되었다. 첫 번째로 1903년 오사카에서 열린 내국권업박람회(內國勸業博覽會) 전시장 중, 학술인류관에 조선인을 야만인류로 분류해 조선인 여성 2명이 ‘장식’되었다. 또한 ‘춘락경지가 황폐하고 미개한 조선을 신개지(新開地)⁹⁾로 소개한 1907년에 도쿄권업박람회(東京勸業博覽會)의 조선 특별관에서도 2명의 조선인 여성이 ‘장식’되었다. 이는 1867년 파리에서 전시되었던 2명의 일본인 사무라이를 연상하게 하며, 야만인으로 ‘장식’되며 미개국으로 조롱받았던 일본이 이제는 조선인을 야만인으로 규정해 ‘장식’할 수 있는 제국주의 국가로 변신했다.

이후 일본의 식민지로 전락한 조선은 공진회가 열리기 1년 전인 1914년

9) 小田青畔, 『東京勸業博覽會案内』, 廣文堂, 1907, p.24.

도쿄에서 개최된 다이쇼박람회(大正博覽會)에 참가한다. 박람회를 소개하고 있는 안내에 의하면, 경복궁을 축소해 만든 조선관은 실내를 빨강과 파랑 색으로 장식했으며 경성시가지, 한반도 모형과 함께 한복을 입은 인형, 식물, 연초, 인삼과 음식물을 진열했다. 또한 미곡점을 만들어 쌀의 이미지를 부각시켰으며 시골의 전통 다리, 논 모형, 모범 어촌의 모형을 만들어 농촌 조선의 이미지를 강조했다. 또한 동양척식주식회사를 통해 조선으로 이주한 일본인들을 그린 작품, 개량면화, 회사가 소유한 토지 등을 상세히 기록하고 있다. 조선을 대표하는 전통문화로는 이왕직 박물관의 불상과 고려청자를 전시했으며 관람객을 위해 정자와 초가로 된 정자를 만들었다. 조선관 입구에는 한복을 입은 조선의 미인이 관람객을 안내했다.¹⁰⁾ 산업화와는 동떨어진 조선의 전통 이미지의 강조는 ‘조선을 신개지’로 여긴 일본인들에게 적극적으로 조선에 이주하기를 바라는 주최 측의 의도가 숨어 있음을 알 수 있다.

III. 조선물산공진회-전통의 단절과 새로운 5년

1915년 9월 11일부터 10월 31일까지 경복궁에서 개최된 ‘시정5년 기념 조선물산공진회’는 1910년 한일강제병합 이후 열린 조선총독부의 최대 사업 중 하나였다. 1913년 물산공진회 계획이 수립되어 이듬해 8월 조선총독부 정무총감을 사무총장으로 하는 평의회가 설립되었다. ‘시정5년 기념’이라는 타이틀에서도 알 수 있듯 조선총독부 5년간의 성과를 국내외에 대대적으로 알리는 행사였다. ‘다이쇼천황’을 대신해 왕족이며 당시 육군대장으로 근무하던 간인노미야 고토히토(閑院宮載仁, 1865~1945)가 일본에서 공진회에 참석하기 위해 조선을 방문한 것으로도 알 수 있다. 그는 청일전쟁

10) 内田寅次郎, 『大正博覽會案内』, 万文堂出版部, 1914, pp.25-26.

에 육군대위로 참전하며 압록강 부근에서 근무했으며 일본 왕족으로서는 조선을 직접 체험한 특이한 이력을 가지고 있었다.

조선총독부의 첫 번째 대외적인 행사에 일본 왕족이 참가한 공진회의 의의에 대해 조선총독부 총독인 테라우치 마사타케(寺內正毅, 1852~1919)는 총독부 기관지인 『조선회보(朝鮮彙報)』를 통해 ‘조선의 현황을 알릴 축소판이 될 것이며 신정 5년간의 성과를 전시하고 조선민중을 깨우치고 그 지식사상을 계발하며 가능한 많은 내지인(일본인)을 초대해 조선의 실상을 소개함은 조선 개발상 중요’¹¹⁾하다고 피력하고 있다.

산업, 교육, 위생, 토목, 교통, 경제의 영역으로 나눠 조선의 식민지화 정당성을 피력하기 위한 엑스포(EXPO)였던 공진회는 총 예산 70만 엔을 들여 조선을 상징했던 경복궁의 일부를 파괴, 공진회 장소로 사용하였으며 경복궁 내 72,800평의 부지를 사용, 총 13부의 전시공간을 마련하였다.



[그림 1]

근정문 앞의 홍화문, 그리고 양편의 유화문과 협성문이 열려 나갔으며 근정전 앞의 영제교는 그 앞에 있던 돌사자 세 마리와 함께 뜯기고 동궁인

11) 「始政五年共進會記念號」, 『朝鮮彙報』, 朝鮮總督府, 1915.09, p.3.

자선당도 헐려 나갔다.¹²⁾ 조선의 전통적인 공간을 파괴하며 개최한 공진회 공간은 1916년 조선총독부 건물이 건립되어 일제강점기를 대표하는 건물로 거듭났으며, 조선의 문화재를 전시했던 공진회 미술관은 이후 조선총독부 박물관으로 활용되었다. 이는 박람회 개최지로 기존의 설비를 이용하여 비용을 절감하거나 개최를 통해 미정비·미개발된 지역을 개발한다는 경제적 관념을 무시하면서까지 경복궁을 행사장으로 결정한 것은 조선 왕조를 지배해왔던 경복궁을 부정함으로써 조선총독부가 조선의 새로운 통치자로서 이룬 성과를 강조하기 위한 공진회 장소로 경복궁은 최적의 장소였음을 알 수 있다.

공진회는 조선총독부의 시정을 홍보, 조선의 생산품을 전시하는 데 그치지 않았으며 다양한 볼거리를 관객들에게 제공함으로써 수많은 관람객들을 불러 모았다. 총 51일간 개최된 공진회는 조선인 73만 명, 일본인 30만 명으로 총 관람객 116만 명을 기록했다. 공진회 관람객 데이터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30만 명이나 되는 일본인 관람객이다. 국적이 명확하지 않은 무료 관람객(관료, 군인, 공진회 참가자 등) 13만 명 중, 대부분을 차지할 것으로 보이는 일본인 숫자를 감안하면 공진회를 관람한 총 일본인의 수는 개최지가 조선임에도 불구하고 40%에 육박하는 수치이다. 또한 공진회 기간 동안 일본적십자사 총회, 애국 부인회 조선지부 총회 등 각 관변, 이익단체의 총회를 경성에서 개최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조선은 물론 일본에서 많은 관람객들이 참가하게 되었다.

다음으로 공진회에 참가한 조선 전 지역의 관람객 수를 통해 조선내의 관심도를 살펴보고자 한다. 표는 지방에서 공진회를 관람한 단체 관람객 수를 나타내는 표이다.¹³⁾

12) 허영섭, 『조선총독부, 그 청사 건립의 이야기』, 한울, 1996, p.61.

13) 李泰文, 「1915年『朝鮮物産共進會』の構成と内容」, 『言語・文化・コミュニケーション』 No.30, 慶應義塾大學, 2003, p.59. 재인용.

[표 1]

도명	보통단체	학생단체	도명	보통단체	학생단체
경기도	26,107	19,373	경상북도	3,086	108
강원도	4,200	500	경상남도	2,403	431
전라북도	2,426	155	평안북도	1,831	119
전라남도	2,324	104	평안남도	2,010	828
충청북도	1,879	241	함경북도	734	-
충청남도	3,218	727	함경남도	2,231	350
황해도	5,301	221	합계	57,750	23,156

공진회에 가장 많은 수의 관람객을 차지한 지역은 경성을 포함한 경기도 지역으로 이는 지역적인 근접성이 주요한 요인일 것이다. 다음으로 황해도, 강원도, 충청남도, 경상북도, 전라북도에서 공진회를 관람한 숫자가 많다. 이는 공진회에 참가한 이들 지역이 철도교통 인프라 구축과 밀접한 관계임을 알 수 있다. 경부선(1905년), 경의선(1906년), 호남선(1914년 1월), 경원선(1914년 8월)이 완공됨으로써 가능했다 할 수 있다. 또한 조선총독부와 공진회를 지원했던 각 지역 협찬회(協贊會)는 조직적인 관람객 유치를 위해 관람 장려회, 단체관람 권유, 관람료 지원 등을 통해 해당 지역민들의 공진회 참가를 유도했다. 하지만 당시 조선에서 116만 명을 동원한 공진회의 관람객수는 실로 경이적인 수치라 할 수 있다.

교통인프라의 구축, 지역 협찬회의 활동으로 기록한 116만 명은 다양한 행사¹⁴⁾와 함께 철도와 전기, 활동사진(영화) 등 새로운 기술과 문화를 자신의 눈으로 직접 체험하기 위해 모이기도 했다. 예를 들면, 철도관은 관내에 원형으로 만든 미니 레일 위를 미니 철도를 타고 관내를 유람할 수 있어 가장 인기 있는 장소가 되기도 했으며, 전기를 이용해 야간의 경성시내를

14) 10월 10일 : 보물찾기의 날- 공진회장 주위 상가와 흥행장 일대, 10월 17일 : 부인과 아이의 날-화장품과 그림엽서 선물, 10월 24일 : 자전거 경주대회, 150명 출전, 10월 25일 : 예기 기생 공연 430명, 10월 25일 : 일본배우 60명, 조선배우 30명의 가장행렬, 10월 26일 : 경회루에서 불꽃놀이.

일루미네이션으로 장식함으로써 별천지를 만들기도 했다. 또한 야간에 경복궁 경회루에서 불꽃놀이를 개최, 용산연병장에서 공진회 행사장까지 비행기가 비행함으로써 비행기의 이륙과 착륙을 구경하기 위해 관람료(어른 : 5전, 어린이:3전)까지 지불하며 근대 문명을 체험하고자 했다. 이들 행사는 조선총독부가 조선에서 이룬 성과가 아닌 향후 조선총독부가 이루고자 하는 방향을 보여주는 것들로 일반 관람객들의 현실과는 동떨어진 것이었다.

공진회의 주요 테마인 조선의 물산은 조선은 물론 일본, 대만에서 출품한 3만 7천여 점이 전시되었다. 농업(13,817점), 동양척식주식회사(66점), 임업(1,420점), 광업(847점), 수산업(2,847점), 교육(3,785점), 경제(890점), 위생 및 자혜구제(2,072점), 미술 및 고고학자료(1,302점), 각 지역 물산(2,402점), 부외참고품(일본, 대만 : 8,321점)으로 구성되었다. 공진회에 출품된 물품들은 조선총독부의 선정기준에 따라 결정되었다.

시정 5년 기념 공진회 요강

- 2 출품은 단순히 조선의 물산 뿐 아니라 산업, 교육, 위생, 토목, 교통, 경제 등에 관한 시설 및 통계를 망라, 산업 및 기타 문물의 실황 및 개선 진보의 상세를 전시.
- 3 출품은 부류에 따라, 부류는 종별에 따라, 각 도(道)로 구분해 대조를 명확히 하며 따로 도 전체의 상세한 설명과 시설의 상황을 대조 비교할 수 있는 물품을 출품.
- 4 내지(일본)생산품의 출품은 조선의 생산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것, 외국 수입품에 대해 판로확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물품에 한해 본회의 출품을 승인.

공진회 출품에 관해 상세히 기록한 요강은 조선총독부의 시정으로 조선 물산 및 제반 산업의 ‘개선 진보의 상세’한 현황을 ‘대조 비교’함으로써 관람객에게 시각적인 효과의 극대화를 줄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다. 조선총독부의 통치 5년간의 업적을 수치와 그래프로 시각화함으로써 식민지화의

정당성을 알리고자 한 것이다. 또한 공진회는 ‘조선의 생산업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 외국수입품에 대해 관로확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물품’ 즉, 일본에서 생산된 물품을 공진회의 출품 명목으로 선정하고 있다. 이는 농업, 수산업, 임업 등 1차 산업이 대부분이며 아직 2차 산업이 정비되어 있지 않은 조선의 상황을 고려하면 제국주의의 식민지 정책에서 식민지를 본국에서 필요한 원재료의 공급처와 대량생산한 제품의 판매시장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과 일치한다. 공진회의 의의를 ‘가능한 많은 내지인을 초대해 조선의 실상을 소개함은 조선개발상 중요’하다고 밝힌 데라우치 총독의 견해는 일본 산업체의 조선 진출을 통해서야 비로소 조선이 개발될 수 있음을 반증하고 있다.

조선총독부의 시정 5년을 기념해 식민지화의 공적을 홍보하기 위해 개최된 조선물산공진회는 경복궁으로 대표되는 조선의 전통문화를 파괴함으로써 제국 일본의 식민지 조선의 새로운 시작을 알린 무대였으며 수많은 조선인과 일본인들에게 일본에 의해 구축된 신문명을 알리는 자리이자 일본 산업의 확장을 조선은 물론 대내외적으로 공포한 행사였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조선총독부가 지역 지배의 구조를 위해 공진회를 통해 의도한 것은 무엇인지 조선에서도 대표적인 1차 산업중심지인 전북 지역과 공진회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IV. 전북물산공진회

1. 관민의 주도에 의한 공진회

1907년 도쿄권업박람회를 소개한 오다 세이한(小田靑畔)은 일본인들에게 ‘한국에서 농사의 경영은 앞으로 어떤 분야보다도 유망하며 기타 양잠, 제

사(製絲), 원예(園藝)¹⁵⁾를 추천하며 한국으로 이주를 권하고 있다. 오다의 의견은 농업을 주요 생산수단으로 한 조선에서 타 지역에도 통용될 수 있는 항목이지만 전북의 경우 오다의 추천지로 적격이었으리라 여겨진다.



[그림 1]

1915년 공진회 참가에 앞서 전라북도는 1914년 11월 17일부터 같은 해 12월 3일까지 ‘전라북도 물산진열관(객사)’을 중심으로 전북물산공진회(全北物産共進會)를 개최한다. 1909년 통감부시기 비장청 건물을 빌려 운영했던 ‘전라북도 물산진열장’이 1912년, 국가의 경조사 행사장과 중앙관리의 숙소로 이용되었던 객사로 이전한다. 전북에서 생산된 상품을 진열해 상품의 소개 및 판매까지를 담당했던 물산진열장은 물산장려관이 신축되는 1937년까지 그 역할을 담당했다.

객사와 함께 새롭게 3동의 건물을 만들어 개최한 전북물산공진회는 조선물산공진회의 예비행사의 성격이 짙었다. 전북물산공진회는 ‘도내 물산의 개량증식과 근면분투의 미풍을 양성’¹⁶⁾하기 위해 7천여 점의 도내 생산물이 전시됐으며 13만여 명의 관람객(조선인 : 118,434명 일본인 : 14,249

15) 小田青畔, 『東京勸業博覽會案内』, 廣文堂, 1907, p.24.

16) 「전북물산공진회-노력한 설비-성대한 개최식」, 『매일신보』, 1914.11.12, p.2.

명, 외국인 : 266명)이 입장했다.

전북물산공진회의 개최를 위해 전라북도 장관 이두황(李斗璜, 1858~1916, 전라북도 장관 1910~1916)을 시작으로 도내 유지 2,600여 명의 모임인 협찬회가 조직되었다. 협찬회는 1914년 전북물산공진회는 물론 1915년 조선물산공진회의 전북관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했으며 신문지상과 안내책자 등을 만들어 전라북도의 농업, 상업 기타 각 방면을 상세하게 소개하는 역할을 담당했다. 협찬회의 주요 인사는 회장으로 오쿠보 이타루(大久保到), 신태빈(辛泰斌)이 부회장을 맡고 있었다. 오쿠보는 일본 오이타현 출신으로 일본에서 경찰서장을 지낸 후, 조선으로 건너와 용산거류민 단장을 역임했으며 한일강제병합 이후에는 전라북도 내무부장을 맡고 있었다. 신태빈은 경성 관립일본어 학교를 졸업한 후, 전주재무서장과 익산 군수를 역임했으며 이후 주식회사 전주농공은행의 감사를 맡고 있었다. 하지만 회원 대부분은 전북에 근거지를 둔 일본인들이 맡았다. 이들 협찬회의 노력으로 1915년 조선물산공진회를 찾은 많은 일본인들이 전북을 방문하기도 했다.¹⁷⁾



[그림 3]

17) 조선물산공진회 기간 동안, 전북을 찾은 일본인 및 관련 단체는 네 곳의 일본의 중·고등학교, 일본인 신문기자단, 귀족, 실업단과 전직 문부대신 2명이었다. 전북협찬회와는 별도로 154명을 회원으로 구성된 군산협찬회가 활동하고 있었다(회장 : 佐藤重治, 부회장 : 吳在永). 群山日報編輯局, 『全北忠南之主腦地』, 群山日報, 1913, p.206.

1914년 11월 25일 조선총독부의 2인자로서 행정·경제 등의 분야에서 실질적인 책임자였던 정무총감 야마가타 이사부로(山縣伊三郎, 1858~1927)가 전북물산공진회를 방문한 것을 통해서도 그 중요도를 짐작할 수 있으며 일제강점기 전북지역을 대표할 만한 행사였다.

전북물산공진회는 총 4,338점(농림산 : 3,137점, 원예 : 226점, 양잠 : 225점, 수산 : 189점, 공업 : 561점)이외에 조선 각 지역과 일본, 대만, 홋카이도, 만주(滿洲)로부터 천여 점이 출품되었다. 또한 전북물산공진회는 관람객들을 위해 예기와 기생들의 연극 공연을 개최하기도 했다.

2. 일본 제국의 식량기지 전북

전북물산공진회에 출품된 생산품들의 특징을 밝히기 위해 한일강제병합이 이루어지기 이전, 전북의 특산물을 살펴보고자 한다. 조선 후기 인문지리서의 모범으로 평가받고 있는 『여지도서(輿地圖書)』(1757~1765)는 전북의 토산과 진공(進貢)으로 쌀, 생마, 생강, 벌꿀 등의 농수산물과 함께 종이, 닥나무, 대살(竹筴), 부채, 사기그릇 등을 꼽고 있다.¹⁸⁾ 또한 1906년 통감부는 전북의 주요 물산을 ‘부채, 종이, 자기, 대나무, 칠기, 면, 대자리’¹⁹⁾ 등으로 기록하고 있다. 한일강제병합 이전인 1910년 전북의 특산물을 소개한 다음 논설을 살펴보고자 한다.

제국실업회 전북지회에서 새롭게 물품이 발명하였는데 멧누에(柞蚕), 춘잠(春蚕), 명주실(絹絲), 태문지(苔紋紙, 이끼 무늬가 있는 종이), 봉투지 세목(封套紙細木, 울이 가늘고 고운 무명), 낙죽장(烙竹杖, 달곤 쇠로 지져서 무늬를 놓거나 그림을 그린 대), 연초(煙草), 죽장(竹枕), 생강절편(軟薑煎果), 죽각(竹刻)은 모두 고유한 물품으로 신연구를 가하여 예전의 제조에 비하면 백승(百勝)한

18) 변주승, 『여지도서 44~50 전라도』, 흐름출판사, 2009.

19) 한국통감부 총무과, 『조선사정요람』, 경성일보사, 1906·1907, p.41.

가치가 있다더라. 동포여 현세 문명은 물품 제조의 발달이 문명이요, 국가와 민족의 경쟁 능력이 모두 제조 발달의 힘이니 우리나라의 고유한 물산과 고유한 민지(民智)로 각종 제조에 대하여 신연구와 신발명이 증진하면 국력의 부강...²⁰⁾

조선시대의『여지도서』에서 알 수 있듯 조선시대 전북의 대부분 특산품이 자연적으로 얻어진 1차 산업이 중심이었던데 비해, 1910년은 1차 산업을 통해 얻어진 생산물을 가공한 2차 산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조선 고유의 산업에 ‘신연구’와 ‘신발명’을 함으로써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하며 쌀로 대표되는 농업과 함께 양잠, 제지, 죽세공품, 생강, 연초 등을 전북지방의 특산품으로 꼽고 있다.

그렇다면 한일강제병합 이후 개최된 1914년 전북물산공진회의 공식기록집이라 여겨지는 『전라북도안내(全羅北道案内)』를 통해 조선총독부의 전북의 물산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고려시대부터 전북의 특산물 중 하나인 제지는 전북이 수출할 수 있는 가장 유망 분야이지만 자연적인 건조에 의지함으로써 생산량이 불균형하여 기계를 이용, 생산력을 증대시킬 것을 주문하고 있다. 또한 순창군에서 제조되는 태문지(苔紋紙)는 장식용과 부채로 사용할 수 있으며 장래 수출품 중 가장 기대할 수 있는 분야라고 평가하고 있다.²¹⁾ 1914년 도쿄에서 개최된 도쿄다이쇼박람회에 조선을 대표하는 물품으로 전주의 한지가, 1929년 히로시마에서 개최된 쇼와박람회에 한지와 태지(苔紙)가 전북을 대표하는 특산물로 전시되었다. 태지는 가공하여 고급 봉투와 고급 편지지로 사용되었으며 한지는 둥근 부채인 단선(團扇)과 접이 부채는 물론 종이우산으로 만들어지기도 했다.

전북의 대표적인 산업인 농업에 대해 한일강제병합 이전 전북의 벼농사는 ‘물이 있으며 경작, 없으면 방관하며 자연에 의지하고 있는’²²⁾ 상황이며

20) 「全北新製造의 進歩」, 『황성신문』, 1910.01.19, p.2.

21) 全北日日新聞社, 『全羅北道案内』, 1914, p.107.

벼 품종개량과 함께 관개용수의 확보, 비료의 사용을 최우선 과제로 지목하고 있다. 조선의 재래 벼농사는 관개용수시설의 미비로 물을 이용하는 농법보다는 가뭄에도 견딜 수 있는 품종이 대부분을 이루었으며 이로 인해 수확량은 미비했다. 하지만 일본의 경우 관개용수 시설의 정비를 통해 풍부한 수량으로 재배하는 품종을 개발함으로써 수확량의 증대를 가져왔다. 조선총독부는 조선의 각 지역에 조선의 재래 벼 품종보다는 일본의 벼 품종인 조신력(早神力), 곡량도(穀良都), 고천수(高千穗), 다마금(多摩錦) 석백(石白), 일출(日の出), 금(錦), 도(都)을 보급했으며 전북의 경우, 조신력, 곡량도, 고천수, 다마금, 석백을 중심으로 품종개량을 시행했다. 이는 1910년 전후 조선에 관개용수를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세워진 수리조합 7곳 중 5곳이 전북지역에 있을 만큼 조선총독부도 전북지역을 벼 품종 개량을 위한 최적지로 여겼을 것이다.²³⁾ 또한 조선재래벼와 일본의 벼 품종과는 수확량에서 확연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었으며 다음 표를 통해 살펴보자.²⁴⁾

[표 2]

	품종명	1909년 石	1910년 石	1911년 石	1912년 石	1913년 石
조선재래벼	왜조(倭租)	2,735	2,062	2,435	1,773	2,151
	조미조(朝米租)			2,349	2,356	2,353
	석산조(石山租)				2,664	2,664
	평균	2,735	2,060	2,392	2,264	2,363
일본벼	조신력	3,150	2,608	2,634	2,659	2,763
	고천수	3,437	2,859	2,866	2,823	2,996
	곡량도	3,478	2,835	3,100	3,017	3,108
	석백	3,744	2,947	3,464	3,082	3,309
	평균	3,452	2,812	3,016	2,895	3,044

22) 앞의 책, pp.75-77.

23) 임익(臨益, 1908), 옥구서부(沃溝西部, 1909), 전익(全益, 1910), 임익남부(臨益南部, 1910), 임옥(臨沃, 1911)

24) 『種苗場事蹟概要』, 全羅北道, 1913, p.4.

전주의 종묘장에서 조선 재래벼와 일본 벼를 시험 재배한 후, 수확량을 비교한 표는 매년 약 700석 정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는 관개용수 시설의 정비와 함께 비료의 사용에서도 그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일본의 경우 화학적인 비료를 사용하는 반면, 조선의 경우 퇴비, 인분, 녹비 등 자급 자족으로 만든 자연적인 비료를 사용함으로써 수확량에 차이를 나타냈다.²⁵⁾ 또한 가격에서도 일본벼가 조선 재래벼보다 섬당 20전이 비싸 일본 벼는 우량품종이라는 인식이 조선인 농민들에게 알려졌으며 1915년 개최된 조선물산공진회에서도 조신력과 일출, 고천수가 우수 농산물로 선정되었다.²⁶⁾

벼 품종 개량과 함께 한일강제병합 이전 조선에는 없었던 쌀가마니와 새끼의 제조를 적극 장려하고 있는 것이 눈에 띈다. 일본에서 대부분 수입하던 가마니는 쌀의 고장 전북에서 반드시 필요한 사업으로 조직적으로 만들 것을 주문하고 있다.²⁷⁾

조선시대 쌀의 운송은 가마니의 일종인 섬을 사용해 고정되지 않은 쌀을 수송하였다. 벼짚으로 만들어진 섬은 날 사이가 성기어 낱알이 작거나 고정된 곡물은 담지 못하는 단점이 있었다. 하지만 일제강제병합 이후 전북 지역에서 생산된 쌀은 모두 고정과정을 거쳐 군산에서 일본으로 수출하였기 때문에 고정된 쌀을 담은 용기로 조선의 섬은 비효율적이었기 때문에 일본에서 들여온 가마니에 넣어져 보내졌다. 병합 초기 연간 약 10만장을 일본에서 들여온 가마니는 점점 가격이 폭등했으며 가격에 비해 부피도 커서 수출업자들에게는 도리어 손해를 안겨주었다.²⁸⁾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책이 조선에서 가마니를 제작하는 것이었다. 조선의 대표적인 쌀 생산지인

25) 조선의 일반 농가는 비료에 관한 관념이 유지하며 (중략) 2년 또는 3년째에 시비하는 것이 보통이다. 비료의 사용은 벼농사의 개량을 위해 긴급하게 필요하다. 『京畿道種苗場報告』京畿道 1926, p.22.

26) 『시정5년 기념 조선물산공진회 출품물 심사발표』, 『매일신보』, 1915.10.17, p.1.

27) 全北日日新聞社, 『全羅北道案内』, 1914, pp.108-1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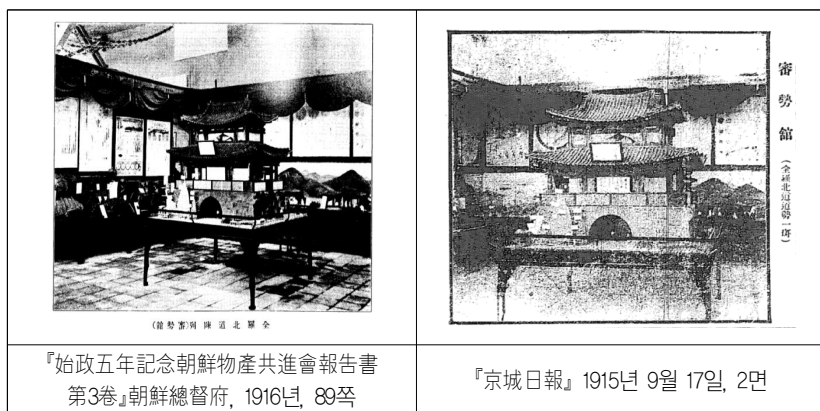
28) 『朝鮮施政15年史』, 조선매일신문사, 1925, p.493.

전북은 쌀 생산이후에 남은 벼짚이 어느 지역보다 풍부했으며 이를 이용해 부업으로 가마니를 만들기 시작했다. 1916년에는 전북 지역 7개 군에 가마니와 새끼를 만드는 조합이 설립되었으며, 1918년에는 만주에까지 수출하게 되었다. 농가의 부업으로 수출품으로 각광받던 가마니 제작의 이면에는 조선의 쌀을 일본으로 수탈하기 위한 도구를 조선인 스스로 만든 것이었다.

전북물산공진회에 맞춰 전북의 물산에 대해 기록한 『전라북도안내』에는 모든 분야에 걸쳐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사항이 눈에 띈다. 조선의 전래 방식에서 탈피해 교육과 기계의 도입, 그리고 개량화를 도입한다면 대량 생산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조선총독부에 의해 시행된 전북(조선)의 전통적인 산업구조의 개편은 조선이 아닌 일본을 위한 것이었음을 엿볼 수 있다.

V. 조선물산공진회와 전북관

1914년 개최된 전북물산공진회에서 선정된 분야를 중심으로 조선물산공진회에 참가한 전북은 2,500명의 공식관람단(조선인 : 2,300명, 일본인 : 200명)이 함께했다. 공진회에 참가한 대부분의 지역이 해당 지역을 축소시킨 미니어처를 전시, 각 지역을 대표하는 풍경을 그린 그림을 장식했다. 철도, 도로 등 도로개수를 모형화한 경기도, 등신대의 인형이 한일강제병합 당시 지역의 생산액을 그린 작은 지구형 도구와 1915년 당시 생산액을 커다랗게 만든 지구의를 양손에 들며 비교하고 있는 충청북도, 38개의 공립학교의 분포 현황을 소개한 충남, 대형 상어 박제를 장식한 경상남도, 전력을 이용해 지역 상황을 찍은 사진을 환등기를 이용해 영상(映寫)한 황해도, 전력을 이용해 광고한 함경남도, 연해주와 간도를 잇는 교통망을 부각한 함경북도, 을밀대를 만들어 그 안내 지역 생산품을 진열한 평안남도, 주요 광물을 산 모양으로 만든 평안북도, 금강산 모형으로 장식한 강원도가 있었다.



[그림 4]

전라북도는 풍남문 모형을 만들어 주요 5대 사업인 농업, 어업, 축산, 임업, 잠업을 전시하고 있다.²⁹⁾ 전북관을 묘사하자면 풍남문 용마루는 연초와 혁피(革皮), 김, 생강으로 장식, 석단은 짐승의 가죽, 제지원료, 임산물로 장식했다. 또 주위에는 곡식류와 벌꿀, 밤, 마른 생선을 배치했다. 성에 창문까지 정교하게 만들어 호남제일성을 알리기 위한 효과를 실물로 나타냈다. 또한 풍남문 주위에는 전북의 5대 사업을 소개하며, 새롭게 개조한 농기구, 그물을 올리며 풍어(豐漁)의 이미지를 표현한 어선의 모형, 군산항의 모형, 옛 쌀과 현재 쌀, 천연산 표고버섯과 인공재배를 통해 생산한 표고버섯, 재래 목탄과 개량목탄 등을 배치해 산업의 개량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또한 풍남문 좌우 벽에는 도표와 유화 등으로 전북의 산업, 교육, 농업, 양잠, 사방(砂防), 어업, 식림, 수산, 무역 등 한일강제병합 이전과 1915년의 현황을 자세한 수치를 통해 비교하고 있다.³⁰⁾ 대부분은 철저하게 생산량을 기준으로 비교하고 있다. 경복궁의 일부를 해체하면서까지 조선의 전통을 부정했던 조선총독부의 방침과는 달리 전북의 경우, 조선 왕조의 본향(豐沛

29) 「始政5年記念朝鮮物産共進會(4) 審勢館開館」, 『매일신보』, 1915.10.16, p.1.

30) 「大共進會 出品概觀(20) 審勢館(全北)」, 『경성일보』, 1915.10.10, p.1.

之館)인 전주의 풍남문을 선택하고 있다. 이는 다른 지역이 도로교통과 전기, 학교 등 근대 문화를 상징하는 매체를 이용한데 비해 전북의 경우 마땅히 근대 문화를 상징할 매체가 없었음을 보여준 것으로 사료된다.

전라북도에서 준비한 심세관의 전북관과는 별도로 동양척식주식회사가 설치한 동양척식관(東洋拓植館)은 전라북도의 수리모형을 홍보하고 있었다.



[그림 5]

동양척식관에는 전라북도의 수리모형과 함께 수원의 왕실 목장, 조선의 수리왕으로 불리었던 후지이 간타로(藤井寛太郎)의 후지흥업주식회사(不二興業株式會社)의 대정수리조합의 모형과 함께 공사 개시 이전의 현황과 이후가 대조적으로 소개되고 있다. 전라북도의 수리조합은 전익(全益), 임익(臨益), 임옥(臨沃), 임익남부(臨益南部), 옥구서부(沃溝西部) 다섯 곳의 수리조합의 모형이 배치되었다.³¹⁾ 예를 들면 1909년 설립된 임익수리조합의 관개 공사(灌溉工事) 후 ‘가뭄 피해 걱정 없이 홍수의 피해 또한 희박해져 안전하게 경작할 수 있게 됨으로써 수확이 3배로 증가했다고’³²⁾고 보고하고 있다. 이와 같이 수리조합 사업의 성과를 데이터로 제시하며 조합의 필요성을 관

31) 「第1號館第2部拓植館」, 『매일신보』, 1915.09.22, p.1.

32) 「臨益水利組合の沿革及事業成績」, 『朝鮮叢報』, 朝鮮總督府, 1915.12, p.58.

람객들에게 보여주고 있다. 수리조합을 통해 벼 생산량이 늘어났지만 높은 소작료 등으로 인해 수리조합은 대지주를 위한 조합으로 변질되었으며 1920년대 이후 수리조합의 하천개수, 저수지축조, 관개공사 등의 사업으로 토지를 잃은 농민들은 농촌을 떠나 도시의 빈민으로 전락하게 되었다. 공진회에서 홍보한 자연재해에서 벗어나 안전한 경작을 통해 수확량이 증가했다는 수리조합의 사업은 자연재해에서는 벗어났지만 일본인·조선인 대지주라는 인재(人災)로 이어졌으며 전통적인 조선 농촌사회가 더욱 황폐화되었다.

VI. 나가며

19세기 제국주의 국가들의 세력과시장인 박람회(박람회는 최신 신기술을 활용해 생산력을 높여 풍요로운 삶을 누리기 위한 무대의 역할을 담당했지만 제국주의 열강의 식민지 확장을 전시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도 했다. 일본의 식민지로 전락한 조선 또한 조선총독부에 의해 전통이 부정되며 식민지 정책에 따라 사회 구조가 개편되었다. 본격적으로 진행된 식민지화 작업을 일반대중에게 선보인 첫 무대가 1915년 경성에서 개최된 조선물산공진회다.

3장에서 살펴보았듯 조선총독부는 조선의 상징인 경복궁을 조선물산공진회 장소로 선택함으로써 조선의 전통적인 이미지를 부정하고 식민지 조선의 새로운 이미지를 건설하고자 했다. 경복궁 훼손과 조선총독부 미술관 건립을 통해 조선의 문화재를 새롭게 발굴해 전시하기도 했다. 이왕직 박물관 주임이었던 스에마쓰 구마히코(末松熊彦, 1904년부터 1941년까지 조선에 체재)사무관은 조선물산공진회의 사무국 촉탁으로 근무하며 조선의 문화재 전시를 기획했다. 공진회 전시장 중 하나였던 미술관 전시를 위해, 조선 팔도를 돌며 각 지방의 문화재를 발굴, 소장자를 설득해 총 1,046점이

전시되기도 했다. 이는 조선인 상류층 일부가 소장하고 있던 문화재를 공공장소에 끌어내기 위한 기획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서산대사의 유품(평안북도), 불상(평안남도), 고려시대의 조종(釣鐘: 사원에 매달아 두는 종, 전라북도) 등 조선의 고미술품들이었다.³³⁾ 각 지역의 개인들이 소중하고 있던 작품들이 관람객을 포함한 일반 대중에게 그 존재가 알려지며 공진회(共進會)는 공진회(貢進會)가 될 가능성을 내포했다.³⁴⁾

조선총독부의 문화적 식민지배와 함께 경제적 식민지배 과정을 전북물산공진회를 통해 살펴보았다. 전통적인 조선 농촌사회 구조의 개편을 지향한 조선총독부의 의도를 엿볼 수 있었다. 이는 전북뿐만 아니라 조선 전 지역에 걸쳐 광범위하게 시행됐음은 명확하다. 조선총독부가 권장한 관개시설, 간척, 개간 등의 토지개량과 품종개량, 비료 사용 등의 농사개량을 통해 얻어진 수확물은 조선이 아닌 일본의 부족한 쌀을 공급하기 위한 것이었다. 1918년 일본 국내에서 발생한 쌀소동(米騒動)³⁵⁾으로 인해 부족한 쌀을 공급할 적임지로 조선을 선택했으며 1920년대 산미증식계획을 통해 조선은 일본의 식량공급기지로 전락했다. 조선물산공진회 이후의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 알 수 있듯 1910년대 토지개량과 농사개량은 식량공급기지 조선을 육성하기 위한 조선총독부의 장기 프로젝트의 첫 사업으로 보아야 할

33) 「一堂에 集함, 古美術의 精粹」, 『매일신보』, 1915.08.25, p.4.

34) 어떤 이는 공진회(共進會)를 공진회(貢進會)로 오해해 소중히 소장하고 있던 서화, 골동품을 은닉하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이것은 엄청난 오해이다. 공진회(貢進會)가 아닌 정확한 공진회(共進會)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좋은 기회를 이용해 조선 고대의 문명을 자랑해 쇠퇴해 가는 조선 문명의 부흥을 계획하는 것이 조상과 대가들에 대한 의무이지 않을까.(중략)영원히 조선 고유의 미술이 소멸하는 기운이 있어 이번엔 특별히 미술관에 전력을 다하려고 하니 반드시 공진회(貢進會)가 되어 당국이 이를 자유롭게 처분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의심하지 말고 출품을 지원해... 매일신보, 1915.01.20

35) 제1차 세계대전의 영향으로 호황을 누리던 일본 국내 경기는 1918년 7월, 인플레이션의 발생으로 인해 노동자의 실질임금이 저하됐으며 쌀 가격이 전쟁 전의 4배로 폭등함으로써 전국적인 규모의 대중운동이 발생하게 되었다. 하지만 실질적인 원인은 시베리아 출병을 앞두고 상인들과 지주들의 투기로 쌀 가격이 상승했던 것이다. 高柳光壽『日本史辭典』角川書店, 1968, p.344.

것이다.

조선총독부 시정 5년간의 식민통치 선전을 위해 개최한 조선물산공진회는 5년간의 업적보다는 조선의 산업구조를 개편해 본격적인 식민지로 거듭나기 위해 마련된 무대였다고 할 수 있다. 1차 산업구조의 개편은 2차 산업의 활성화로 이어져 전북축산주식회사(1920), 동진수리조합(1924), 가타쿠라제사방적주식회사(1927), 전주제사주식회사(1927), 군산비료주식회사(1936) 등이 지역에 설립되었다. 이렇게 육성된 2차 산업은 1929년 경제 불황을 타개하기 위해 개최된 조선박람회의 주요테마가 된 것은 말할 나위도 없다.

일본산 상품을 배제하고 조선산 목면, 모자, 고무신 등을 애용해 조선인 민족 자본가의 육성을 도모하기 위해 조만식 등이 1923년 조직한 조선물산장려회의 존재는 1915년 조선물산공진회가 누구를 위한 존재했었는지 명확히 반증하고 있다.

(논문투고 : 2016. 4. 25, 논문심사완료 : 2016. 5. 31, 게재확정 : 2016. 6. 7)

참고문헌

강민기, 「조선물산공진회와 일본화의 공적(公的) 전시」, 한국근현대미술사학, 제16호, 2006.

변주승, 『여지도서44~50 전라도』, 흐름출판사, 2009.

신주백, 「박람회-과시·선전·계몽·소비의 체험공간」, 역사비평, 2004.

유길준, 허경진역, 『서유견문』, 한양출판, 1995.

육영수, 「은자(隱者) 왕국의 세상 엿보기 혹은 좌절된 접속 : 1900년 파리세계박람회에 전시된 “세기말” 조선」, 대구사학, 제114호, 2014.

요시미 순야, 이태문 옮김, 『박람회 근대의 시선』 논형, 2004.

이각규, 『한국의 근대박람회』, 커뮤니케이션북스, 2010.

정순영·정창원, 「근대기 한국 박람회의 건축 및 도시적 성격에 관한 고찰 : 朝鮮物産共進會(1915년)를 중심으로 東京大正博覽會(1914년)와 비교하여」, 대한건축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계획계/구조계, Vol.25 No.1(계획계), [2005]

주운정, 『조선물산공진회(1915)에 대한 연구』,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석사논문, 2003.

최석영, 「조선박람회와 일제의 문화적 지배」, 『역사와 역사교육』(제3·4호), 1999.

한국통감부 총무과, 『조선사정요람』, 경성일보사, 1906·1907.

허영섭, 『조선총독부, 그 청사 건립의 이야기』, 한울, 1996.

李泰文, 「1915년『朝鮮物産共進會』の構成と内容」

内田寅次郎, 『大正博覽會案内』, 万文堂出版部, 1914.

小田青畔, 『東京勸業博覽會案内』, 廣文堂, 1907.

群山日報編輯局, 『全北忠南之主腦地』, 群山日報, 1913.

清水橘郎, 『朝鮮事情鶏の腸』, 梅原出張店, 1894.

全東園, 「朝鮮物産共進會と『朝鮮文化財』の誕生」, 『言語・地域文化研究』東京外國語大學大學院, 2009.

『全州案内』京城谷岡商店, 1923.

全北日日新聞社, 『全羅北道案内』, 1914.

朝鮮總督府, 『始政五年記念朝鮮物産共進會報告書 第1~3卷』, 朝鮮總督府, 1916.

朝鮮總督府商工獎勵館, 『朝鮮重要物産物産物分布圖』, 1933.

朝鮮物産共進會, 『朝鮮案内』朝鮮物産協會, 1914.

山路勝彦, 『近代日本の植民地博覽會』, 風響社, 2008.



• 국문초록 •

조선총독부의 시정 5년을 기념해 식민지화의 공적을 홍보하기 위해 개최된 조선물산공진회는 경복궁으로 대표되는 조선의 전통문화를 파괴함으로써 제국 일본의 식민지 조선의 새로운 시작을 알린 무대였으며 수많은 조선인과 일본인들에게 일본에 의해 구축된 신문명을 알리는 자리이자 일본 산업의 확장을 조선은 물론 대내외적으로 공포한 행사였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조선총독부의 지역지배의 파악하기 위해 전북물산공진회를 분석했다. 조선의 전통 방식에서 탈피해 교육과 기계의 도입, 그리고 개량화를 도입한다면 대량 생산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조선총독부에 의해 시행된 조선(전북)의 전통적인 산업구조의 개편은 조선(전북)이 아닌 일본을 위한 것이었음을 엿볼 수 있다.

조선총독부가 권장한 관개시설, 간척, 개간 등의 토지개량과 품종개량, 비료 사용 등의 농사개량을 통해 얻어진 수확물은 조선이 아닌 일본의 부족한 쌀을 공급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토지개량과 농사개량은 식량공급기지 조선을 육성하기 위한 조선총독부의 장기 프로젝트의 첫 사업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조선총독부 시정 5년간의 식민통치 선전을 위해 개최한 조선물산공진회는 5년간의 업적보다는 조선의 산업구조를 개편해 본격적인 식민지로 거듭나기 위해 마련된 무대였다고 할 수 있다.

주제어 : 조선물산공진회, 조선총독부, 전라북도, 수리조합, 물산

• Abstract •

Colony of regional domination of
the Governor-General of Korea

Lee, Jung-wook

The Chosen Industrial Exhibition in 1915 was held to promote the achievements of colonization to celebrate the five years of corrective Governor-General of Korea. It destroyed the traditional culture of Chosen was represented by the palace announced the debut of anew beginning of the Imperial Japanese colonial Korea. To thousands of Koreans and Japanese was the place stating that a new civilization was created by the Japanese. The event was to notify the expansion of the Chosen business in Japan and other countries.

If we move away from the traditional way of introducing the Chosen and machinery will be introduce improvement of education leads to mass production. The reorganization of the structure of the traditional Chosen industry(Jeonbuk) under taken by the Governor-General of Korea can be a glimpse into the Empty for Japan rather than Chosen(Jeonbuk).

Governor-General of Koreahadrecommendedtheimprovement of agriculture, such as irrigation, land reclamation, improved varieties, such as clearing land improvement, fertilizer use. Japan, not Chosen was to harvest the rice supply shortage. Land improvement and improved farming will be seen as the first Governor-General of Korea in the business of long-term projects to foster food supply base line.

The Chosen Industrial Exhibition in 1915 was held for the colonial Governor-General of Korea propaganda five years of domination. The Chosen

Industrial Exhibition in 1915 was prepared to make a full-fledged colony to reorganize the structure of the Chosen industry for five years, rather than achievements.

Key words : Chosun Products Exhibition, Governor General of Korea, Jeollabuk do, Irrigation association, Produce

